

삼성전자, 4세대 HBM 공개 임박

엔비디아 계약 등 광폭행보
11월 '인베스터즈 포럼' 예정
차세대 칩 공급 청사진 공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전세계 GPU 시장의 대표격인 엔비디아와 HB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는 11월 홍콩에서 투자자 포럼을 열고 4세대 HBM 칩 개발 및 차세대 칩 공급의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이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엔비디아(NVIDIA)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4세대 HBM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홍콩 언론 아이지웨이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1월 매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2023 인베스터즈 포럼(2023 Investors forum)'을 연다. 구체적인 일자는 미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삼성전자 메모리칩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사업부 임원과 골드만삭스, JP모건, 피델리티, 블랙록 및 싱가포르투자청(GIC)가 참여한다.

HBM(High Bandwidth Memory)은 고대역폭 메모리로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탑재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GPU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GPU 내에서 또 핵심 역할을 하는 HBM도 수혜를 입었다. 삼성은 특히 HBM 일괄 공급(턴키·Turn Key) 체제도 갖추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삼성의 HBM3 공개와 투자 유치에 관심이 모아지는 데에는 GPU 시장의 성장과 핵심 플레이어인 엔비디아(NVIDIA)에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엔비디아(NVIDIA)의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HBM3 공급 계약을 맺었다. 앞서 삼성전자는 AMD와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GPU 시장은 197억 1166만 달러였는

데, 2028년 334억6393만달러로 연평균 7.85% 성장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업계에서 추정하는 엔비디아의 GPU 시장 점유율은 약 80% 안팎이며 AMD는 인텔과 나란히 9%대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엔비디아의 매출 규모와 점유율의 추가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GPU는 CPU와 달리 그래픽 병렬 연산이 가능해 인공지능 학습과 고도화에 쓰이고 있다. 여기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이 HBM이다. 앞서 전세계적 열풍을 부른 챗GPT가 1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NVIDIA)의 GPU를 사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AI와 대형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개발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는다면 GPU와 HBM 시장 전망은 장밋빛이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내년도 삼성전자의 HBM 시장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기존 SK하이닉스로부터만 HBM을 공급받던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로 공급망을 다변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점유율

40%를 선점하며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아이폰15의 출시도 삼성전자에 호재가 됐다. 아이폰 15가 탑재 국면이던 스마트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아이폰을 비롯한 여러 스마트폰에 D램(RAM)을 공급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HBM 설계, 생산부터 2.5D 첨단 패키징까지 HBM 턴키 생산체제를 유일하게 구축하고 있다"며 "(턴키 체제는)엔비디아, AMD 등 주요 고객사 입장에서 HBM 공급 안정성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동시에 첨단 패키징의 공급처 다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딘 듯 보이던 삼성전자 주가 전망은 장밋빛이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은 지난 13일 기준 9만1364원으로 SK증권이 평가한 목표 주가가 10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는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영업이익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 그래픽 처리장치(GPU) 상용화로 각광받게 된 고대역폭메모리(HBM)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디(D)램, 낸드(NAND) 가격이 2021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동시 상승 반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4분기부터 3조원 규모의 누적된 메모리 반도체 재고평가손실 환입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크게 증가한 1조470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이전 전망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품믹스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아서 적자폭을 크게 줄이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다.

/저현정 기자 seoh@metroseoul.co.kr



중, 2년 만에 요소수 수출 통제 중국이 2년 만에 또 다시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

尹 "北 핵 공격,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를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결속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한미의 확장억제는 양국이 함께 협의, 결정, 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연준 방향성 관건... 환변동 위험 여전

>> 1면 '물가 못 잡는 美...서 계속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 위치에 따르면 연방기금리(FFR) 선물시장에서는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98%에 달했다.

◆ 高환율 韓, 금리인상하나

특히 이번 미 연준의 금리 결정방향은 한국은행의 10월 추가 금리인상 결정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 금리(5.25~5.50%)와 2%p 벌어진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FOMC 회의에서 미국 금리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 금리정책이 어느정도 오래갈 지에 따라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한미간 금리격차로 외환시장 자본이 유출되거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

만, 시장의 기대감이 외환시장에 반영되는 만큼 연준의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원·달러 환율은 1325.9원에 마감했다. 지난 7월 평균 1286.30원 대비 3% 올랐다. 연준 금리인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경제위기로 기대한 만큼 반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연준이 당장 동결을 하더라도 금리인상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비취지면, 원·달러 환율 상승이 불가피하다. 외환시장 변동에 따라 금리인상 결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지난 12일 공개한 금통위의 사록에서 한 위원은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미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하고, 당분간 주요 통화의 움직임에 따라 높은 환율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경제주체들은 환변동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휘발유·경유 가격 10주 연속 오름세

IEA, 4분기까지 공급부족 전망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연장 검토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0주째 오름세가 지속되는 17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앞에 가격 안내문에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0주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고유가가 지속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0.77원 상승해 1769.86원을 나타냈으며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0.60원 상승해 1668.61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의 평균가격이 1743.39원으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높은 1776.5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도 알뜰주유소가 1644.49원의 평균가격을 기록하며 가장 저렴하게 판매했으며, GS칼텍스 주유소의 평균가격이 1676.21원으로 가장 높았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2원 오른 1848원이었으며 이는 전국 평균 가격보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앞으로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3일 발표한 9월 석유 시장 보고서를 통해 4분기까지 상당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석유 제품의 수요가 더 견조해졌다며 감산이 유지될 경우 올해 공급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OPEC 회원국인 리비아의 대홍수로 동부 지역 4곳의 원유 수출 터미널이 폐쇄돼 유가 상승을 부추겼다.

한편 주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화와 유가연동 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현정 기자 hyeon@

삼성·SK, 인력충원 등 경쟁력 강화 분주

>> 1면 'AI 투자 바람에...'서 계속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개발한 AI를 쓸 예정으로, 일부 공정 개발 과정에 자체적으로 기초적인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도 인텔과 함께 서버용 메모리 성능 검증에 나서는 가운데, 사

내서 후공정 인력 충원을 하면서까지 HBM과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힘을 더하고 있다. 키파운드리 대만법인과 솔리다임 국내 지사를 폐쇄하는 등 효율을 높이는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방문하며 미래 투자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김재우 기자 juk@